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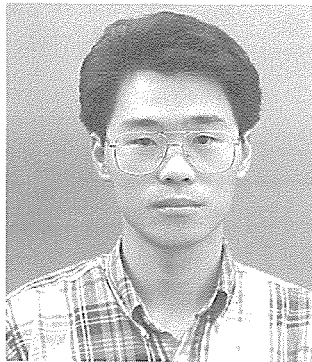
흐릿한 30인치 大型망원경 우주의 神秘에 나를 잊는다

과학에는 전공분야가 참으로 많다. 그 많은 중에서 내가 천문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다. 그들의 눈에는 그 많은 분야중에서 하필이면 왜 별이나 팔자 좋게 쳐다보는 별 볼일 없는 학문을 택했느냐 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사람들은 우주에는 별이 얼마나 많으나, 우주는 얼마나 크며 끝은 있느냐, 망원경으로 별이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는 등의 질문 공세를 퍼는 것을 보면 모두 우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주과학은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천문학을 포함해서 우주를 탐구하는 모든 학문분야를 망라한 학문이다. 학부에서 여러 관련분야를 공부하며 나는 관측천문학을 전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기초과학은 대체로 이론과 실험으로 전공분야가 나뉘어지지만 천문학은 이론과 실험대신 관측으로 나뉘어 진다. 그 이유는 우주의 스케일이 워낙 방대하여 다른 기초과학과는 달리 실험실에서 우주의 현상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우주가 그대로 실험실이 되고 우리는 이 실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측만 하면 된다.

나는 우주의 크고 신비스러움에 매료된 셈이다. 나는 이 우주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저 하늘 깊숙히 박힌 별들을 보고 싶노라면 온갖 시름은 물론이고 내가 지상에서 별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대학원 생활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업과 숙

캠 퍼 스 發 言 臺



진 호

〈경희대학교 대학원 우주과학과 석사2기〉

제와 시험과 연구발표 등으로 쪼들림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것은 내 옆에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대학원 생활은 경희대 천문대에 국내에서 제일 크다는 30인치 망원경의 설치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작업은 미국에서 온 기술자를 위시해서 교수님, 대학원학생, 인부 등 여러 사람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나는 느낀 것이 많다. 우선 별로 복잡하다고 생각되지도 않는 망원경을 비롯한 거의 모든 기기가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의 기술자(실은 그 사람은 기술자라기보다는 천문학자로서 박사학위도 있고 전직 대학교수였

다고 한다)의 기계를 다루는 태도였다. 그는 기계를 다룸에 있어 조금도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다. 차분하면서도 순리에 맞는 절차를 따랐다. 또 다른 느낌은 기기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이다. 자기의 전공분야와는 전혀 다른 회로의 연결이나 기기의 특성 파악 등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었다. 사실 우리의 교육은 주로 강의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도 기기에 대한 자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소위 대학원에 다닌다는 내가 이리할진대 학부학생을 비롯한 대부분 학생들의 수준도 짐작할만하다. 나는 이 망원경 설치작업을 끝낸 후 굳은 결심을 했다. 적어도 나는 내가 쓰는 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겠다고.

천체를 성공적으로 관측하려면 여러 가지로 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우선 관측자가 관측하려고 하는 천체의 위치, 밝기 등을 사전에 잘 알아야 하고 기기가 아무 이상없이 정상가동 되어야 한다. 그것에 덧붙여서 날씨의 도움없이 관측이 불가능하다. 실은 요즘과 같이 전자기기가 발달된 세상에서는 날씨가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다. 날씨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나는 유난히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 어차피 나는 하늘에 인생을 걸었으니 날씨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살아간다고 이상할 것은 없다.

비록 남들이 별보는 학문을 별 볼일 없는 학문을 한다고 놀릴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으려 한다. 그것은 이 학문이 나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대학원학생들에게 왜 이 숭고하고 신비한 학문을 두고 다른 학문을 하느라고 골치를 썩이느냐고 묻고 싶다.